

孫, 박근혜 철옹성 TK 민심잡기

(대구·경북)

민주당 대구서 최고위원회의... 대구시장도 면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9일 한나라당의 텃밭이자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시민토론회, 서남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주민좌담회를 차례로 갖고 영남 끝안까지 행보를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는 민주주의의 본고장이고 우리나라 혁신운동의 본거지이자 산업화의 본거지"라며 "그런데 그 대구의 경제가 지금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루빨리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전 대구의 한 대중목욕탕을 찾은 일을 소개하며 "시민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줬다. 대구라고 해서 민주당을 냉랭하게 바라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피부로 느끼고 희망을 봤다"며 "이는 민심이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탄 내고 서민경제와 남북평화를 망가뜨린 이명박 정부에서 떠나고 민주당에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당 영남미래특별위 공동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영남을 포기하는 지역이 아니라 영남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고 영남으로부터 사람받는 정책을 개발하고 영남의 대변자로 지역의 숙원을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이례적으로 방문,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시장은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

부와 면담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야당의 지원과 함께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손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국가적으로 특히 동남권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당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가진 시민토론회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나섰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다듬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어려운 실상을 듣고 국민의 견의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희망대장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사료 찾아온 김범일 대구시장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중경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초심으로 돌아가 여수시민과 소통"

정병국은 채택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된 반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는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병국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보고서는 "정 내정자는 11년간 문방위원으로 재직하는 등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갖췄다고 보아 적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격 의견"을 담았다. 다만, "정 내정자가 유류비 부

당사용 의혹, 불법 농지전용 및 부동산 실행에 의혹, 박사논문 표절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해 부적격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최중경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실물 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청문회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최 내정자의 낙마를 목표로 여론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주승용 의원

"이유야 어찌됐던 지역 주민들께 심리를 꺼져들어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것과 관련,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주승용 의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수사 종결 통보를 받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지난 4개월은 나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 전 시장의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지만 여수시



민 의 보이지 않는 성원은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됐었다"며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여수 시민들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오 전 시장의 비리 파문 등으로 여수지역 정치권이 많이 흐트러진 상황"이라며 "심기일전이라는 말 그대로 말바닥부터 다시 시작, 여수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복지전쟁, 증세 논란으로 확산

野 '무상복지'에 與 '세금폭탄론' 격돌

2005년 종합부동산세 이어 '리턴매치'

여야 간의 복지논쟁이 증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기세를 몰아 의료와 보육을 포함한 무상시리즈를 내놓자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이 '전가의 보도' 격인 '세금폭탄론'을 다시 꺼내들며 대대적 반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보수진영이 과수 공세로 이미 증세가 쟁점이 된 데다가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야권에선 증세 논쟁과 관련, "손해볼 게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청년실업과 학력세습 등 빈곤 고

감안, 민주당은 일단 "어떤 증세도 없다"고 차단막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무상복지 논란은 결국 세금 논쟁으로 비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미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이 소극적 증세 성격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진영이 과수 공세로 이미 증세가 쟁점이 된 데다가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야권에선 증세 논쟁과 관련, "손해볼 게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청년실업과 학력세습 등 빈곤 고

착화와 비례해 부유층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이런 반목 현상이 지방선거 때처럼 야권 지지표로 나타날 것이라 얘기다.

반면 여권은 '세금폭탄론'이 다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의 '무상복지론'이 '증세'와 연결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이 무작정 세금과 담을 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 공격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불가'를 견지할 경우 '부자당'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증세 논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재균 의원, 북구 축산·양계농 방문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국회의원은 19일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북구지역 축산농가 및 오리·양계농가를 방문해 농민들과 구제역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축산농가 및 AI관련 오리 및 양계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북구 용전동 용산교에 설치된 방역 이동 통제소소를 방문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북을 지역위원회 시·구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AI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 농가를 돕기 위해 북구 관내 '오리 요리의 거리'에서 식사를 했다.

곽정숙 의원, 남구서 의정보고회

민주당 당 대표인 김대중이 19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2개월가량 광주 남구 16개 동과 주요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의정보고회는 의정보고서 배포, 동영상 상영, 의정보고 및 정책담당자 설명, 의원 연설, 주민 의견·건의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광주 남구 지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

가기 위해 대단위 규모의 행사보다는 동별·아파트 별 의정보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곽 의원은 또 이번 의정보고회 과정에서 백운 고가 도로 문제, 남구청사 이전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등 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곽 의원이 2012년 있을 총선에서 남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이현·배진하, 의정비 인상액 기부

광주 남구의회의 이이현(사진원쪽)·배진하(민주당) 의원은 19일 "2011년 의정비 인상액 매월 20만원씩 총 40만원(연간 480만원) 매달 저소득 취약계층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비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다 남구청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남구의 현실을 반영해 반납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다수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해왔으며, 의정비 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약속했었다.

한편, 남구의회의 의정비는 3220만원에서 346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2010년 10.3%에 이어 2011년 7.7%가 인상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천회관 뒷편

* CH 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어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뺀다는 거 거기도 흔들며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미팅결 보드랍고 말발거리는 피부 캄캄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인지 헷갈린다. 분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벌의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복발로 불리게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젊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행복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 문 방 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